

『체르노빌原電事故로 癌患者 増加』라는 報道の 實狀



◀오염상황을 보도한 3월 20일자 프라우다지.

금년 2월에 「모스크바·뉴스」라는 소련의 주간지에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암환자가 증가하고, 또 집단농장에서는 기형가축이 많이 태어났다는 기사가 게재되어 보도되었었다.

이 잡지는 몇개국어로 번역되어 해외에도 널리 보도되었기 때문에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소련 당국자와 전문가는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던 소련의 전문가는 3월 1일자 「프라우다·우크라이나」紙에 그 반론을 게재했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사에서는 키트밀州 나로지티地域에서

암의 발병이 연간 2배로 증가했고, 입술과 구강암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프리샤지뉴크교수(방사능센터 방사선영향 병리학 연구실 주임)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암이 증가했다고 하는 지역은 체르노빌사고가 있었던 1986년에는 주민의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에 암환자의 등록이 적어 49건으로 저하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87년의 등록건수가 94건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배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되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모든 환자의 카르텔을 再체크한 결과 발병의 변화는 키트밀州와 우크라이나 전체가 같은 것이 공식통계에 의해 확인됐다.

이 통계에서는 암환자수가 1988년에는 반대로 74건으로 저하되고 있었다. 입술의 腫瘍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는 매년 저하경향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기형돼지에 관해서도 전문가그룹이 파견되어 조사한 결과 송아지의 기형은 62건이 아니라 8건이며, 돼지새끼에 있어서도 약간 적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확인된 기형의 돼지새끼도 그 원인이 방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친교배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다.

가축의 기형문제에 대해서는 사고전에 우크라이나의 포레스키地區 제3농장에서 2%의 송아지에서 이상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이 기형의 원인을 조사한 바 토양, 사료에 포함된 코발트, 옥소, 동 등 미량원소의 양이 기준치에 비해 20배에서 200배나 적었고, 반대로 기준치의 20배를 초과하는 질소화합물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어졌다.

체르노빌사고가 발생한 1986년이래 소 500마리와 돼지 200마리가 실험농장에서 오염이 높은 사료로 사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건의 기형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사능 만이

가축기형의 원인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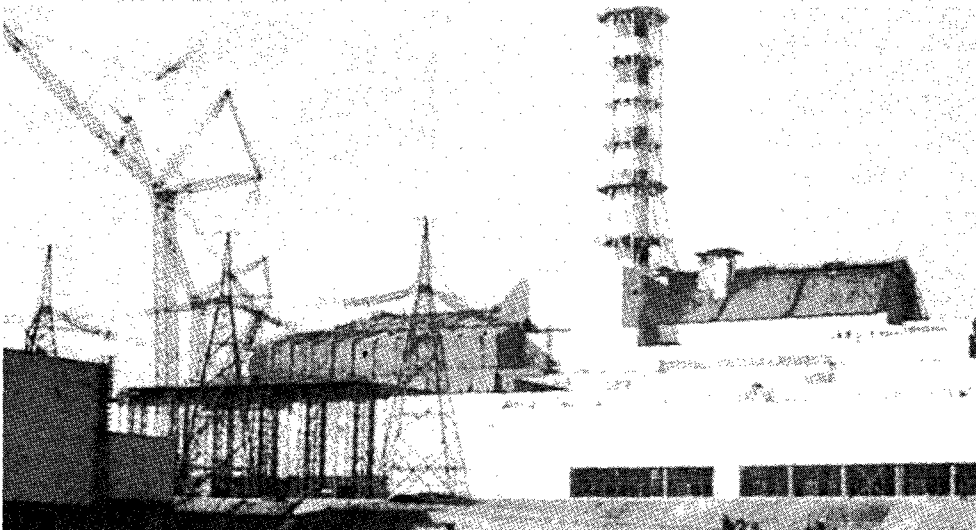
이러한 반론을 「프라우다·우크라이나」지에 발표한 것은 방사선의학, 방사선영향병리학, 방사선위생 등의 전문가 6명이었다.

그밖에도 모스크바·뉴스의 기사에서는 소련당국이 방사능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전문가에 의해 명확히 반론이 제기되었다.

체르노빌주변의 상세한 오염상황에 대해서는 3월 20일 「프라우다」에 보도되었으며, 각종 대책도 아울러 보도되었다.

4월에 일본원자력산업회의의 연차대회에 발표자로 나온 구바레프씨(소련공산당기관지 프라우다 과학부장)도 모스크바·뉴스의 기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지 않고, 체르노빌 사고의 방사능에만 원인을 전가하려 한 예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에도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주민에게서 방사능에 의한 암과 백혈병이 증가했다고 전해지는 예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전경.